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연구

김태훈*, 윤태형**, 김요섭***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국문초록

목적: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상관이 있는지와,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K대학교 보건계열 1학년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를 활용하여 45분 동안 183문항을 조사하였다.

결과: 성격적 특성 중 효능감과 실천력이 학업성취도와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기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학업성취도가 학습동기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학업성취도와 행동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8개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성취군 사이의 학습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격적 특성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 효능감과 실천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특성에서는 낮은 학업성취군 학생들이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학업성취군 학생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특성에서는 낮은 학업성취군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회피 동기에서는 반대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특성의 사용능력에 있어서는 8개요인 모두에서 낮은 학업성취군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학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학습전략의 사용 능력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이나 전공과목의 개설 뿐 아니라 학습전략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보건계열 대학생, 학습전략, 학업 성취도

I. 서론

김영채(1990)에 의하면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이란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하여 학습자 자신이 취하는 모든 방법적 사고나 행동으로 정의되며, Alexander(1998)는 학습 전략을,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자가 사용하는 정신적 조작으로써 의식적이든 무의식

교신저자 : 김요섭(yskimm925@hanmail.net)

|| 접수일: 2011. 05. 25 || 심사일: 2011. 06. 08

|| 게재승인일: 2011. 06. 14

적이든 간에 목표지향적인 구체적 행동으로 규명하였다. 학습전략은 인지적 학습전략, 초인지적 전략, 그리고 자원관리 전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인지적 학습전략에는 시연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 전략이 포함되며, 초인지적 전략에는 계획전략, 조정전략, 조절전략이, 그리고 자원관리 전략에는 시간관리, 공부환경 관리, 노력관리, 타인의 조력 추구 등이 포함된다(박동혁, 2006).

연구자들은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해 왔다. 예를 들어,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성흠(1988)에 의하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 지능,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전략 가운데서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습전략이었다. 특히 학습전략 가운데 정보처리, 주요 개념 선택, 학습 보조물 활용, 자기점검, 시험전략 같은 주 전략이 수업태도, 학습동기, 시간활용, 불안대처, 주의집중과 같은 보조 전략보다 학업성취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현정, 2005).

Pintrich, Marx와 Boyle(1993)등도 3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의 하위척도와 학점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으며, Segal, Chipman과 Glaser(1985)는 학습전략의 차이와 학업적 수행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박현정(2005)은 자주 사용하는 학습전략의 유형에 따라 특정 과목에 대한 흥미, 자기 효능감, 자아개념, 수행점수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 개념은 통제전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生の 학습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보고해 왔다. 전명남(2003)은 그의 연구에서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은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에 비해 동기전략, 인지전략, 자원관리 전략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상위 성적을 보여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전략들을 보면 계획, 시간관리, 철저한 수업시간에의 참여와 집중, 반복과 시연, 이해전략, 시험 준비와

대처전략, 노력 조절, 동기화, 규칙적인 학습습관, 노트필기 전략, 리포트와 과제 수행전략 등이었다(전명남, 2003).

보건복지부(2007)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의 면허 취득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 하였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1998년 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나 2007년에는 59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10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하였고, 물리치료사는 1,071명에서 2,418명으로 2.3배, 치과위생사는 2.2배, 치과기공사는 2.1배, 간호사는 1.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 동안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전문성의 향상은 국민 보건의 질적 향상이나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의 보건계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필수적이며, 학생은 적절한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업에서의 요구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학습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임상실습 및 취업 상황을 경험해야 하므로(유은영, 2009), 인문계열이나 이공계열 대학생과는 다른 학습양식이나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달석(2001)의 연구에서도 예체능 계열, 인문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대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학습전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원관리 전략에서는 이공 및 의약 계열 대학생이 예체능 및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학습내용의 심층적 처리 측면에서는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 의약계열, 이공계열의 순으로 점수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문에 입문한 대학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뿐 아니라,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후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들의 학습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남 지역에 위치한 K대학교 보건계열 3개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3명의 검사 결과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여 100명의 자료만 통계 처리하였다.

2. 연구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한국 가이드스(박동혁, 2006)에서 제작한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MLST: 학습전략검사, 대학생용)였다. MLST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 즉, 학습에 있어서의 심리적 특성, 학습동기, 학습 습관 및 기술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학생용의 경우 45분 동안 183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MLST 외의 자료로써 학생들의 2009년도 2학기 학업 성취도(학점) 자료도 사용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2009학년도 2학기 학업 성취도 자료에서는 4.5점 만점인 학점의 GPA(평균 점수)와 석차 등수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학과별로 학점의 배분 정도가 다르므로 동일 학과 학년별 2009학년도 2학기 GPA점수를 기준으로 T점수를 산출하여 51~100점을 높은 학업 성취군, 0~50점을 낮은 학업 성취군으로 분류하였다.

학업 성취도와 학습전략 요소들 간의 상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전략의 특성 영역들 및 요인 즉 성격적 특성(효능감, 자신감, 실천력 요인 포함), 정서적 특성(우울, 짜증, 불안 요인 포함), 동기적 특성(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포함), 그리고 행동적 특성(시간 관리, 공부환경, 수업태도, 노트필기, 집중전략, 책읽기, 기억전략, 시험준비 포함)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학업성취도와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사이에서의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사용하였다. 두 그룹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 정서적 특성, 동기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의 요인 별로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값과 p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100명 중 남자는 20명(20%), 여자는 80명 (80%)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1학년이었으며 나이는 모두 20세로 동일하였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습전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분한 두 그룹인 학업 성취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은 각각 50명으로 동일하였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	20
	여	80	80
학업성취도	높은 군	50	50
	낮은 군	50	50

표 2. 학업 성취도와 성격적 특성의 상관계수

	r	p
효능감	.43	.00**
자신감	.11	.26
실천력	.48	.00**

**p<0.01

표 3.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특성의 상관계수

	r	p
우울	-.19	.06
짜증	-.11	.27
불안	-.04	.67

*p<0.05

표 4. 학업 성취도와 동기적 특성의 상관계수

	r	p
학습동기	.36	.00**
경쟁동기	.03	.73
회피동기	-.25	.01*

*p<0.05, **p<0.01

2.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학업 성취도와 성격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효능감과 실천력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 주었다.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특성 영역에서는 (표 3)에 제시되었듯이 세 요인 중 어느 영역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주지 않았다.

표 5. 학업 성취도와 행동적 특성의 상관계수

	r	p
시간관리	.33	.00**
공부환경	.26	.01*
수업태도	.39	.00**
노트필기	.33	.00**
집중전략	.34	.00**
책읽기	.26	.01*
기억전략	.37	.00**
시험준비	.44	.00**

*p<0.05, **p<0.01

표 6. 학습전략 하위 요인에 대한 학업 성취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습전략 요인	회귀 계수 (B)	표준 오차 (SE B)	표준화 계수 (Beta)	t
효능감	-.27	.40	-.13	-.68
자신감	.48	.27	.24	1.80
실천력	-1.43	.44	-.73	-3.28**
우울	.45	.36	.23	1.27
짜증	-.44	.36	-.25	-1.23
불안	-.07	.30	-.04	-.22
학습동기	-.21	.35	-.10	-.61
경쟁동기	.23	.25	.13	.92
회피동기	-.10	.25	-.06	-.42
시간관리	1.07	.43	.55	2.46*
공부환경	.35	.29	.17	1.23
수업태도	.22	.35	.11	.63
노트필기	.08	.34	.04	.22
집중전략	-.26	.30	-.15	-.87
책읽기	-.01	.27	-.01	-.05
기억전략	-.24	.34	-.12	-.72
시험준비	-.51	.32	-.23	-1.59
상수=64.0 F=2.13** R ² =.31				

*p<0.05, **p<0.01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적 특성 영역을 보면 (표 4)에 나타나듯이 학습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성취도와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8개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학업성취도와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표 6), 8개 요인 중 실천력과 시간 관리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즉, 실천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성적)은 -0.73만큼 낮아졌고, 시간관리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성적)은 0.55만큼 높아졌다.

3. 학업 성취도군에 따른 학업전략의 차이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의 사이의 성격적 특성 영역을 비교한 결과 효능감과 실천력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표 7), 정서적 특성 영역에서는 우울(p=0.02)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표 8)에 나타나 것처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기적 특성 영역에서는 학습동기와 회

표 7. 높은 성취군과 낮은 성취군의 성격적 특성 비교

학습 전략 요인	높은 성취군 (n=50)	낮은 성취군 (n=50)	t	p
효능감	54.4±9.6	46.5±7.4	4.57	.00**
자신감	49.2±9.1	47.6±10.6	.83	.41
실천력	55.4±9.3	45.6±8.2	5.61	.00**

**p<0.01

표 8. 높은 성취군과 낮은 성취군의 정서적 특성 비교

학습 전략 요인	높은 성취군 (n=50)	낮은 성취군 (n=50)	t	p
우울	46.8±9.6	51.7±10.2	-2.48	.02*
짜증	49.3±11.8	53.4±9.9	-1.91	.06
불안	49.0±10.3	50.2±10.2	-.60	.55

*p<0.05

피동기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표 9), 행동적 특성 영역에서는 8개 요인 모두에서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0). 이를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기억전략, 시험 준비, 집중전략, 시간관리, 수업태도, 노트필기, 공부환경, 책읽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와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표 9. 높은 성취군과 낮은 성취군의 동기적 특성 비교

학습 전략 요인	높은 성취군 (n=50)	낮은 성취군 (n=50)	t	p
학습동기	52.5±9.1	46.3±8.7	3.46	.00**
경쟁동기	53.5±11.1	53.8±11.3	-.15	.88
회피동기	49.2±9.4	55.1±11.6	-2.76	.00**

**p<0.01

표 10. 높은 성취군과 낮은 성취군의 행동적 특성 비교

학습 전략 요인	높은 성취군 (n=50)	낮은 성취군 (n=50)	t	p
시간관리	54.7±10.0	47.0±8.7	4.14	.00**
공부환경	52.5±6.8	46.1±10.6	3.59	.00**
수업태도	54.9±8.7	47.3±9.4	4.05	.00**
노트필기	51.9±8.7	44.7±10.2	3.81	.00**
집중전략	58.3±10.3	49.3±10.9	4.26	.00**
책읽기	49.5±9.9	44.5±10.1	2.51	.01*
기억전략	51.8±8.4	43.5±9.3	4.69	.00**
시험준비	52.3±8.4	44.6±8.17	4.62	.00**

*p<0.05, **p<0.01

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서 먼저 학업 성취도와 학습전략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전략의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실천력 중 효능감과 실천력에서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즉, “나는 잘 할 수 있어.”와 같은 믿음 혹은 기대와 같은 것이다(Bandura, 1986; 1997). Schunk(1984)는 자기 효능감은 사고의 질을 높이고 인지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학습전략의 정서적 특성인 우울, 짜증, 불안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는 특정한 내적, 외적 상태에 의해서 생성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이며(Beck, 1994; Carlson, 1994), 일반적으로 학습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eck,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특성과 학업 성취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측정 문항에서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업 성취도와 동기적 특성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학업 성취도가 학습 동기 요인과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준 사실은 역시 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이성흠(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 성취도와 학습동기 및 회피동기 요인과의 관계는 Franken(1994)과 Atkinson과 Birch(1978)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ranken(1994)에 의하면 성취동기란

성공에 대한 접근 경향과 실패에 대한 회피 경향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대립된 결과이다. Atkinson과 Birch(1978)는 성공에 대한 접근 경향성은 개인의 성취욕구, 개인이 지각하는 성공 가능성, 과제를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합쳐진 결과이며, 실패를 기피하려는 경향성은 실패를 기피하려는 동기, 실패 가능성, 과제를 실패했을 때의 부적 보상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학업 성취도와 행동적 특성의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8개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성흠(1988)은 학습전략 가운데 정보처리, 주요 개념 선택, 학습 보조물 활용, 자기점검, 시험전략을 주 전략으로, 수업태도, 학습동기, 시간활용, 불안대처, 주의집중과 같은 전략을 보조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장하였다(전명남, 2003). 본 연구에서도 이성흠(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주 전략인 시험 준비 전략은 8개의 행동적 특성 요인 중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 전략들인 수업태도, 시간관리 그리고 집중전략 등도 학업 성취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업 성취도 군에 따라 학습전략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 사이의 성격적 특성 영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효능감과 실천력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같은 학교 환경의 변화에 뒤따르는 적응 기간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Bandura, 1997). 따라서,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가능한 빨리 대학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도 이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 사이의 정서적 특성 요인을 비교해 보면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성취군 학생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많이 경

힘하는 우울증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살펴보면, 우울증 상태에 빠졌을 때는 언제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 혹은 교수 등의 심리적 지원망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내 학생 문제 연구소나 상담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높은 학업 성취군과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 사이의 동기적 특성 요인을 비교해 보면, 낮은 학업 성취군에 속한 학생들은 높은 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회피 동기에서는 반대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며, 이것이 학습 동기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학생이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정서나 학습 동기에서의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한 실패보다는 성공의 경험을 자주 맛볼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과제를 부여하거나,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Glasser, Associates, & Media, 1969).

넷째, 학습전략의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의 사용 능력에 있어서는 8개 요인 모두에서 낮은 학업 성취군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군의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으로는 학기 초에 계획 세우기 및 스스로 모니터링(monitring) 하기, 적절한 시간 배분과 관리하기, 수업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필요한 자극 선택 및 이에 집중하기, 반복과 시연을 통한 정보 저장하기, 이해한 후 요약하기, 시험 준비 시 교수의 의도 파악하기, 평상시와 시험 기간의 잠자는 시간 조절과 같은 노력이나 의지 조절하기, 스스로 동기 부여하기, 노트 필기 시 중요한 내용 표시하기 등의 전략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전명남, 2003).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교의 보건계열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와,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과 낮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 즉, 학습에 있어서의 심리적 특성, 학습동기, 학습 습관 및 기술 등을 측정하는 도구인 한국 가이던스(박동혁, 2006)에서 제작한 MLST(학습전략검사, 대학생용)였으며,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2009년도 2학기 학업 성취도 결과 자료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업 성취도와 성격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효능감과 실천력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학습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 동기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학업성취도와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시간관리 등 8개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군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격적 특성 영역에서는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효능감과 실천력 요인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특성 영역에서는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특성 영역을 보면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회피 동기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행동적 특성 영역의 요인들의 사용 능력에서는 8개 요인 모두에서 낮은 학업 성취군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군 학생

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나, 학습동기, 그리고 수업태도, 시간관리, 시험 준비 전략들을 포함하는 행동적 특성 요인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학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학습 전략의 사용 능력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이나 전공과목의 개설 뿐 아니라 학습전략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신입생 때부터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해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참 고 문 헌

- 김영채. (1990). 학업수행과 결합되어 있는 동기 및 학습전략 변인. *계명행동과학*, 3(1), 15-38.
- 박동혁. (2006). 대학생용 학습전략검사. from <http://www.guidance.co.kr>
- 박현정. (2005).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습 전략의 사용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한국교육*, 32(1), 203-222.
- 보건복지부. (200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최근 10년간 합격률. 보건복지부.
- 유은영. (2009).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12), 718-729.
- 이달석. (2001). 대학생의 학습방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4), 403-421.
- 이성흠. (1988).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진명남. (2003). 높은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수행분석. *교육심리연구*, 17(1), 1-28.
- Alexander, P. A. (1998). *The nature of disciplinary and domain learning: The knowledge, interest, and strategic dimensions of learning from subject-matter text*. Learning from text across conceptual domains, 263-287.
- Atkinson, J. W., & Birch, D. (1978).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Van NostrandL: New York.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orth Publishers.
- Beck, R. C. (1994). *Motivation: Theories And Principles, 4/e*. Pearson Education: India.
- Carlson, N. R. (1994). *Physiology of behavior*. Allyn and Bacon: Boston.
- Franken, R. E. (1994). *Human motivation*. Brooks/Cole Pub. Co.: Pacific Grove, Calif.
- Glasser, W., Associates, D. B., & Media F. (1969). *Schools without failure*. Harper & Row: New York.
- McKeachie, W. J. (1986).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llege classroom: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University of Michigan.
- Pintrich, P. R., Marx, R. W., & Boyle, R. A. (1993). Beyond cold conceptual change: The role of motivational beliefs and classroom contextu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2), 167.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1), 48-58.
- Segal, J. W., Chipman, S. F., & Glaser, R. (1985). *Thinking and Learning Skills: Research and open questions*. Lawrence Erlbaum.

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Kim, Tae-Hoon^{*}, M.P.H., O.T., Yoon, Tae-Hyung^{**}, Ph.D., P.T.,
Kim, Yoseob^{***}, Ed.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ay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rategies and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differences between higher academic achievers and lower academic achievers in the use of the learning strateg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fficacy and power of execution in the personality area.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academic motivation,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avoidant motivation, in the motivation area. Thir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all 8 factors in the behavior area. In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there was a difference found in self-efficacy and the power of execution between the higher academic achievers and the lower academic achievers. It also was found that the lower academic achievers perceived more depression, showed remarkably lower motivation and higher avoidance motivation, than the higher academic achievers. Lastly, the lower academic achievers was lagged behind noticeably compared to the higher academic achievers in the ability of using all factors of the behavior area.

Key words :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achievements